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의 관점을 통해 본 DMZ 접경지역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Community-based Tourism in DMZ Border Region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ocial-ecological Resilience

김지나 Kim Jina**

Abstract

DMZ border region is always at the risk of uncertainty though famous for ecotourism. This research analyzed the significance and present problems of community-based tourism(CBT) in Yanggi-ri, the village of migratory birds in DMZ border region. It was according to Ruiz-Ballesteros(2010)'s classification of socio-ecological resilience of CBT. I participated in important events of the village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residents. Residents manage the CBT based on the ecolog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the village. Experts, artists, and NGO activists from the outside of the village also contribute to the positive outcomes of the CBT. However, several problems were found out, such as lack of capacity to launch new tourism programs, absence of outside specialists' continuous engagement,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residents and the outside specialists, and high reliance on one leader of the village.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and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community and ecological environment in DMZ border region, it is necessary to plan the public support on cultural and arts programs of the community, to set various channels for the public opinion about the value of the region, and to open up the participation of outside specialist to utilize local resources.

Keywords: Community-based Tourism, Social-ecological Resilience, DMZ Border Region, Cheorwon

I. 서론

DMZ 접경지역은 인간활동과 개발이 극도로 통제되면서 역설적으로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을 보존하게 된 지역이다. 이러한 환경적 조건은 DMZ 접경지역이 철새도래지로서 생태관광의 거점이 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DMZ 접경지역 중에서도 민간인통제구역 내

에 조성된 대북 선전마을들은 탐조관광객이나 사진작가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마을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이 자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농촌활력화, 농촌관광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공공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며 마을의 관광기반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농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공동화현상이 진행 중이

* 이 논문은 2016 10th Conference of the Pacific Rim Community Design Network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과정 | Ph.D Candidat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 | kjina17@snu.ac.kr

며 쌀농사 시장악화, 남북관계 변화 등의 외부 충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DMZ 접경지역 중에서도 대북 선전마을에서 커뮤니티 기반의 관광이 운영되는 현황으로부터 의의와 당면과제를 분석하여, 마을공동체와 DMZ 접경지역 생태환경의 지속성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위치한 ‘양지리철새마을’로 설정하였다. 철원은 민간인의 출입통제, 먹이가 많은 평야 등 철새 서식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철새도래지로 유명하여, 철

새를 생태관광의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마을이 다수 있다. 그중에서도 양지리철새마을은 민통선 북방지역에 조성된 대북 선전마을로서, 철새 탐조를 위해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에는 마을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에 주목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예술기획단체 등 다양한 외부 주체들이 마을의 기반시설과 프로그램 개선에 개입하고 있다. 한편 다른 일반적인 농촌마을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고령

Table 1_ Field Research Process

Research Date	Research Issue	Key Informants
2016/4/20	Current Situation of the Village and the Community-based Tourism	Head of the Village,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Artist Living in the Village, NGO Activist Living in the Village
2016/5/3	House and Land Transactions	Employees of the Art Planning Institute
2016/6/14	House and Land Transactions	Head of the Village
2016/6/21	Planning a Cultural Event in the Village, Conflicting Opinions Regarding the Community-based Tourism	Head of the Village,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Artist Living in the Village, Personal Operator of Bird-watching Tourism
2016/7/2	Annual Party of the Village, Social Structure of the Village	Head of the Village,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Head of the Women's Society, Artists Living in the Village
2016/7/28	Cultural Event in the Village Planned by the Artist Living in the Village, Conflicting Opinions Regarding the Art Projects in the Village	Head of the Village, Artists Living in the Village
2016/8/18	Operating Problem of the New Community Center, Gap between the Local Residents' Life and the Art Projects	Head of the Village, Local History Researcher, Artists Living in the Village
2016/8/30	Everyday Life of the Residents, Graying Issue of the Village	Head of the Public Health Center in the Village
2016/9/23	Beginning of the Bird-watching Tourism Season, Preparation for the Local Festival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2016/10/21	Participation in the Local Festival, Social System for Community-based Tourism of the Village	Head of the Village,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2016/11/18	Opening the New Community Center as the base for the Community-based Tourism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2016/12/30	Preparation for the Local Winter Festival	Head of the Village,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2017/1/20	Participation in the Local Winter Festival	Head of the Village,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2017/12/4	Community-based Tourism Operated at the New Community Center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Local Tour Guide
2018/2/1	Community-based Tourism Operated at the New Community Center	Local Tour Guide
2018/9/10	Community-based Tourism based on the Art Project	Head of the Village,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Head of the Art Planning Institute

화, 공동화 문제가 진행 중이며 남북정세와 조류독감 등 외부적 충격에 민감한 지역으로,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참여관찰 및 주요 정보제공자 인터뷰로 구성되는 질적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6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6회에 걸쳐 마을을 방문하여 커뮤니티 기반 관광 운영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다. 인터뷰를 위해 마을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정보제공자들을 개인적으로 면담하였다. 주요 정보제공자는 총 12명으로 마을 이장 1명, 사무장 1명, 부녀회장 1명, 보건소장 1명, 마을 내 레지던시 입주작가 2명, NGO 활동가 마을주민 1명, 주민해설사 1명, 마을에 관여하는 외부 관계자 2명, 철원지역 활동가 2명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Table 1> 참조). 그 외에도 마을 방문 시에 수시로 다수의 주민들과 면담하면서 마을현황에 대한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조사결과는 참여관찰이 진행된 직후마다 날짜별로 필드노트를 작성하여 축적하였으며,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커뮤니티 기반 관광(Community Based Tourism)은 1970년대부터 국제적 대량관광 발전모델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응으로서, 작은 농촌커뮤니티 및 생태관광을 통한 자연보호활동과 연관되어 시작되었다(Zapata, Hall, Lindo and Vanderschaeghe 2011). 커뮤니티 기반 관광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 커뮤니티와 환경적 자원에 대한 관광의 영향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관광을 활용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원을 관리하는 전략이다(Suansri 2003). 또한 커뮤니티 내에 전

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자산 및 그것에 대한 자기 관리(Self Management)에 기반을 두는 비즈니스 조직의 형태이며, 민주적이고 연대적인 활동, 관광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분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Maldonado 2005, Zapata, Hall, Lindo and Vanderschaeghe 2011, 재인용), 지역 관광사업의 기획 및 실행을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송영민 2010)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커뮤니티 기반 관광은 태생적 배경으로 인해 농촌관광(Rural Tourism) 및 생태관광(Ecotourism)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촌관광과 생태관광은 모두 기존의 대량관광(Mass Tourism)과 차별적인 형태를 가지는 대안관광의 유형이며, 관광개발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참여와 이익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관광은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초래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서비스공급 쇠퇴, 농가소득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OECD에서는 '농촌풍(Rurality)'이라는 속성, 즉 인구밀도 및 주거규모, 토지이용방식이 농업과 임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전통적인 사회구조와 커뮤니티 정체성 및 문화유산이 관광의 중심이자 차별적인 판매 포인트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OECD 1994). 생태관광의 경우 1965년 'Ecological Tourism'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Ecotourism'이라는 용어는 1983년 멕시코의 홍학 번식지인 유카탄 반도의 북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운동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생태관광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중남미 지역은 커뮤니티 기반의 자연자원 관리, 즉 커뮤니티 보호구역을 제시하여 마을공동체에게 이윤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야생동물 보호를 달성하고자 하였다(김희순 2011).

이러한 개념정의를 반영하듯 그동안 농촌관광 및 생태관광을 다룬 국내 연구들은 대상 커뮤니티의 경

제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촌관광객의 구매특성 및 만족도(류시영, 엄서호 2008; 김경희, 박덕병 2013; 윤유식, 한송희, 김용렬 2014), 농촌관광개발 이해관계자(이주연, 이영주, 이동호 2005), 농촌관광 방문객 인식 및 이미지(전인철, 오형은, 조중현, 김용근 2007; 김병국, 김용기, 박석희 2013), 농촌관광 발전전략 및 효과(김대식, 권용대, 최수영, 임창수 2005; 최국현, 김호 2005; 김호, 허승욱 2006; 이세희, 정남수, 엄대호 2008; 이병훈 2012; 진혜련, 채혜성, 조록환 2014), 농촌관광 현황 및 성과분석(박재철, 송광인, 박천창, 김현욱 외 2006; 엄봉훈 2006; 나란희, 윤용철, 김영주 2010)를 중심으로 농촌관광 연구가 이루어졌고, 생태관광은 지역주민의 태도 및 인식에 대한 연구(엄봉훈 2004; 이진희 2006; 윤화영, 김동석 2008; 이재혁, 손용훈 2015)와 생태관광객의 만족도, 태도, 행태 등에 대한 연구(김용근, 조중현 1998; 노용호, 이수형, 최이규, 양희진 2004; 문창현 2009; 김진, 고동완 2011; 이호영, 오충현 2012; 박은별, 김현, 최희선 2014)가 대부분으로 지역주민 참여와 방문객 특성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윤과 만족감을 달성하는 것이 곧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농촌관광과 달리 생태관광은 환경보존의 목적보다 관광활성화의 목적이 더 강조되면, 지속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대상이 생태환경이 아니라 커뮤니티에만 국한됨으로써 본질이 변질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즉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존문제가 별개의 이슈가 되고, 환경을 보존해야 커뮤니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구조가 붕괴되면 생태관광은 타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커뮤니티의 경제활성화와 주민 만족도 제고는 생태관광이 아니라 다른 개발방식을 취할 때 더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도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면적이 작아 생태관광이 경제개발의 효율성과 지속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생태관광이 발달한 남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성공요인과 국내 도입방안을 분석하는 연구(최재우 2004; 2006; 김희순 2011)들이 있으나, 이 지역들은 유럽인의 이주나 식민지정책에 의해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침해당한 사례로서, 생태관광이 원주민 권리와 문화보존에 대한 당위성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관광 도입의 근거가 우리나라보다 견고하다. 한편 중국(He, Chen, Liu and Bearer et al. 2008), 터키(Kiper, Özdemir and Saglam 2011), 말레이시아(Hamzah and Mohamad 2012), 태국 및 캄보디아(Walter and Reimer 2012)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식민지배를 받은 원주민’이라는 개념이 아닌 ‘지역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상황과 맥락이 유사하지만, He, Chen, Liu and Bearer et al.(2008)의 연구는 여전히 지역주민이 생태관광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Kiper, Özdemir and Saglam(2011)의 연구는 지역주민들이 생태관광으로 인해 지역문화 보존 등 사회문화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고, Walter and Reimer(2012)는 태국과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지역의 환경적, 문화적, 생계수단에 대한 지식들이 어떻게 커뮤니티 기반 관광 프로젝트의 생태관광 커리큘럼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지역문화 보존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Ruiz-Ballesteros(2010)의 연구는 에콰도르의 Agua Blanca 마을을 사례로 관광이 커뮤니티의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Socio-ecological Resilience)에 기여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회복탄력성 증진을 통한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대상

지를 사례로 커뮤니티 기반의 생태관광이라는 방식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관광을 통한 환경보전과 커뮤니티의 공존문제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DMZ 접경지역에서 커뮤니티 기반 관광이 마을공동체와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갖는 의의와 당면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충격들에도 기초적인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을 유지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에 주목한 Ruiz-Ballesteros(201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 개념은 생태관광의 사회문화적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경제적 측면을 강조해왔던 선행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생태관광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던 점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Ruiz-Ballesteros(2010)는 관광연구에서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 개념이 가지는 유용성을 탐구하고 분석적, 방법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그는 관광연구가 점차 시스템적, 사회생태적 관점을 요구하고 있고 경험적 연구를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연구하는 사례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커뮤니티 기반 관광에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이란 현재의 시스템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을 때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해내는 내부적 잠재력, 외부적 변화에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스스로를 관리하는 내부적 통제 메커니즘, 외부적 충격을 경험하는 동안 동일한 기능, 구조, 정체성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회생태계가 변화(Changing)하는 동시에 유지되는 것(Remaining)으로서, 지역(Local)의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관점이 된다고 했

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통해 커뮤니티는 사라지거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그들 삶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Ruiz-Ballesteros(2010)의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커뮤니티 기반 관광은 경제활동보다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관계 및 커뮤니티와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을 발전시킨다. 또한 커뮤니티 기반 관광이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얼마나 보전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기능하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III. 양지리철새마을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1. 커뮤니티 형성과정과 현황

철원군 동송읍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 인근에 위치한 양지리철새마을은 해방 이후 38선의 이북지역이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1954년 남한으로 수복되었으며 1963년에 철원군에 편입된 지역이다. 휴전 직후 미 군정은 휴전선 일대 군 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및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였는데, 1958년 휴전선 방어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게 되면서 출입영농 및 입주영농이 일부 허용되었다. 체제가 안정된 이후 휴전선 인근 유희지 개척과 대북선전을 위해 민통선 북방마을이 건설되어 양지리에는 1973년 100세대가 입주하였다. 현재는 2012년 민통선 북상으로 인해 출입통제 없이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마을에 출입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양지리철새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약 80가구, 150여 명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다른 농촌마을에 비해 주민수가 많은 편에 속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성

인이 되면 마을을 떠나 서울에서 자리 잡는 경우가 많고 자식을 따라 마을을 떠나는 주민들도 있어 고령화가 심각하다. 50대가 가장 젊은 층이며 주민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그중에서도 다시 절반이 80대 이상이다. 현재 마을주민들이 모두 마을 조성 초기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다. 마을주민 대부분은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우스작물 재배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외에 축산, 양봉을 하는 가구가 소수 있고 동송읍내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을주민 중에 이렇게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마을주민들에게 벼농사와 관련된 이슈는 매우 중요하며 경제구조상 벼농사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높다. 1차 산업 중심으로 가공품 판매는 아주 소규모로만 이루어진다.

2.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발생

마을이 생기면서 경작지가 증가하자 월동하기 위해 철원을 찾는 두루미 개체수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양지리마을에 있는 토교저수지는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잠자리가 되면서 탐조지역으로 점차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 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많아지자 주민들은 1996년 양지리 철새보호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고 1999년 한국두루미보호협회 철원군지회로 등록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철원군에서는 양지리를 ‘철새마을’로 공식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철새를 보기 위해 마을을 찾는 탐조객들과 철새들 간의 공생을 위해 탐조대를 설치하는 한편, 2003년부터는 ‘두루미펜션’이라는 마을 소유의 숙박시설을 오픈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사전에 요청한 단체 손님에 한하여 부녀회에서 식사를 판매하기도 한다. 12월부터 2월 동안에는 탐조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부녀회에서 라면, 떡국, 커피 등을 무상 제공한다.

“11월부터 2월까지 철새를 볼 수 있어요. 10월 말 추수가 끝날 무렵부터 기러기는 많이 보여요.”
(정희섭 2016, 4월 20일 인터뷰)

“사진작가들이나,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오세요. 사진작가들은 주로 혼자 많이 옵니다. 펜션은 단체손님에게 적합한 형태라, 조금 수요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김용석 2016, 4월 20일 인터뷰)

3.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운영현황

양지리철새마을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주된 주체는 마을 이장과 사무장이다. 양지리 이장은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현 이장은 5년째 역임 중이며 마을주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 이장은 관광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리더이다. 사무장은 마을 소유의 숙박시설인 ‘두루미펜션’을 운영하면서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가장 먼저 대면한다. 그는 4년 전 마을에 새로 정착한 귀농인으로, 마을 입구에 세운 철새모양 솃대를 스스로 개발하여 제작하였고 마을 안내판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작은 사이즈의 솃대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날이나 지역행사가 있으면 마을 밖에서도 체험행사를 한다. 그 외에 최근에 마을로 이주한 NGO 활동가가 DMZ 철새평화타운 내 카페 운영을 맡기도 했다.

양지리철새마을주민들은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숙박비, 체험활동비, 식비, 직판 농산물 구입비 등의 수익이 있다. 현재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무장에 따르면 펜션 숙박객은 1년 중 약 60% 정도가 여름성수기에 방문하고 휴양 및 안보관광이 목적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철새 탐조를 위해 방문하는 비율은 약 30%

정도이며 그 외에 10%가 군부대 면회를 위해 찾는다 고 한다. 또한 주민들은 지역축제인 '새끼줄축제', '한탄강 얼음트레킹', '새바라기축제'에 참가하여 부차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매년 추수가 끝나는 10월 말경에 개최되는 철원의 지역축제인 '새끼줄축제'는 양지리마을뿐만 아니라 철원 지역사회 전체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행사장 내 장터에서 마을별로 부스를 배정받아 부녀회에서 먹거리 판매를 하는데, 양지리마을이 철새마을로 유명해짐에 따라 읍 단위뿐만 아니라 철원군 내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장터 내 부스도 좋은 위치로 배정받게 되었다. 또한 축제 주최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행사장에서 사용되는 짬뽕장식을 모두 양지리마을에서 제작을 담당하고 있으며, 마을 노인들이 일당을 받고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1월 중순경 철원의 한탄강이 얼면 지역의 대표축제로 꼽히는 '얼음트레킹' 행사가 개최되는데, 트레킹 코스 중간중간에 설치되는 다리와 소나무장식, 얼음조각 장식 등도 양지리철새마을에서 제작하고 있다. 철원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축제인 '새바라기축제'는 2013년부터 매년 1월 1일 양지리 철새마을의 토교저수지에서 개최되며, 마을주민들은 방문객들에게 떡국을 나눠주는 데 협력한다.

“마을 어머님들이 새끼줄 꼬는 작업을 하시고, 아버님들은 이엉 만들고 좀 힘쓰는 일을 하셨어요. 다른 마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지금 양지리도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게 돼요. 젊은 사람들이 전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엉 만드는 일을 배웠어요.” (김용석 2016, 10월 21일 인터뷰)

마을 사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을의 주요 생업

활동인 1차 산업 외에 마을관광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중 지역행사를 통해 받는 것이 43%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외에 1사1촌 협약에 따라 얻는 매출이 28%, 펜션 수익금이 21%,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나 직판을 통한 수익이 약 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익금은 일부를 사무장의 월급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는 개인 기부금과 함께 마을기금으로 조성된다. 마을기금은 주민들이 다 같이 야유회를 가거나 식사를 할 때 쓰이고,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양지리철새마을의 관광 운영체계와 별개로, 일부 주민들이 관광사업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주민은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탐조관광을 주관하고 있는데, 고위인사 등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투어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창출해서 마을발전과 생태환경 보존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장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은 현재의 마을관광 운영체계를 유지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편입되지 못하였다. 한편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농촌관광 활동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마을 전체의 관광사업이 아닌 일부 주민만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마을관광 운영체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4. 최근의 변화

최근 양지리철새마을은 다양한 외부 주체들의 유입으로 새로운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변화를 겪었다. 첫 번째는 DMZ철새평화타운의 개장이다. 2000년에 폐교된 양지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2010~2011년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조성되었다. 2015년 말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으로 제안된 마스터플랜의

일부가 완공되었으며 2017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다. DMZ철새평화타운이 개장함에 따라 기존 안보투어의 출발지점인 고석정에서 운영되던 철새탐조프로그램의 기점이 이곳으로 변경되었으며, 프로그램 참가비 및 DMZ철새평화타운의 숙박시설 이용요금 중 일부는 철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지역 상품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시설조성을 기획할 때에는 양지리 주민이 직접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실행 과정에서 전체 시설운영은 철원군청 직영으로 하고, 시설 내 카페만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협의의 주체는 양지리마을 이장과 철원군이였다.

“처음에 철새평화타운을 우리한테 운영하라고 했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 마을에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정희섭 2016, 8월 18일 인터뷰)

두 번째는 서울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한 예술기획단체가 마을 내 빈집을 임대 또는 매입하여 작가 레지던시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부터 철원군청에서 매입한 양지리철새마을 내 빈집을 개조하여 작가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다. 레지던시의 소유권은 철원군청에 있으며, 이 단체에서는 군청으로부터 관리비를 받고 입주작가에게 그 일부를 활동지원비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레지던시 입주작가들은 의무적으로 지역연계 프로젝트를 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에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마을 내 빈 건물 2개소를 추가로 직접 매입하였다. 이러한 공간들은 작가들의 지역연계 프로젝트를 계기로 방문객 유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관광자원으로 활용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마을 입장에서 마을 홍보와 다양한 콘텐츠 구축에 예술가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실제로 2018년 9월 작가 레지던시 및 마을 내 전시공간들에 설치된 작품들을 관람하고 마을을 방문하는 투어가 기획되어 2차례 진행되었다.

“나는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와줄 생각이 있어요. 작가들도 그렇고, 연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을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작가 레지던시를 통해서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럼 마을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깐 열심히 도와주려고 해요.” (정희섭 2016, 7월 2일 인터뷰)

IV.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통한 양지리철새마을의 지속가능성

본 절에서는 양지리철새마을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현황을 Ruiz-Ballesteros(2010)가 Folke(2003)와 Berkes and Seixas(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회생태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류한 4가지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Folke는 사회생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사회의 행위들을 4가지 특성들로 구분하였고, Berkes와 Seixas는 브라질 남부의 Ibiraquera Lagoon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인 관점에서 4가지 특성별로 구체적인 현상들을 분석했다. Ruiz-Ballesteros의 연구는 이 4가지 특성을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맥락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기존에 연구된 사회생태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의 특징 중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성들을 발견하고 있어, 본 논문의 분석틀로 유용성이 있다(<Table 2> 참조).

Table 2 _Ruiz-Ballesteros(2010)'s Factors for Socio-ecological Resilience based on Folke(2003), Berkes and Seixas(2005)

Factors for Socio-ecological Resilience	Folke(2003)	Berkes and Seixas(2005)	Ruiz-Ballesteros(2010)
Learning to Live with Change and Uncertainty	The Volume Provides Examples of Strategies of Social-Ecological Management that takes Advantage of Change and Crisis	Learning for Crises; Building Rapid Feedback Capacity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 Managing Disturbance; Building a Portfolio of Livelihood Activities; Developing Coping Strategies	Complementary Nature of Different Activities for Coping with Change and Uncertainty
Nurturing Diversity for Reorganization and Renewal	The Memory Provides a Framework of Accumulated Experience for coping with Change	Nurturing Ecological Memory; Nurturing a Diversity of Institutions to Respond to Change; Creating Political Space for Experimentation; Building Trust among Users; Using Social Memory as a Source of Innovation and Novelty	Aware of the Memory Kept by the Community which Situates Its Members in Relation to the Socio-ecosystem; Strengthening Innovation and Novelty
Combining Different Kinds of Knowledge	Peoples' Knowledge,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about the Dynamics of Complex Ecosystems, Their Inclusion in Management Institutions	Building Capacity to Monitor the Environment, Capacity for Participatory Management, and Institutions of Knowledge; Creating Cross-scale Sharing of Knowledge; Combining Local and Scientific Knowledge	Combining Their Local Knowledge with Other Knowledge Outside Their Everyday Lives; Adding to the Knowledge in Everyday Lives as Members of the Community
Creating Opportunity for Self-organization	Adaptive Co-management in which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Ecological Knowledge are Tested in an Ongoing Trial-and-Error Process	Building Capacity for User Self-organization and for Conflict Management; Equity in Resource Access and Allocation; Self-organization in Response to External Drivers; Creation of Multi-scale governance	Equity in the Access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Threshold of Minimum Profitability

1.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법 배우기
(Learning to Live with Change and Uncertainty)

첫 번째 특성은 관광활동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활동의 스펙트럼을 확대함으로써 생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처하는 개인과 집단의 능력을 유연하게 하는 현상이다.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피드백 역량, 불안과 혼란(Disturbance) 관리, 생계활동의 포트폴리오 구축, 대처전략 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커뮤니티 전체가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겪어야 하고 소득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하지만, 다른 생계활동과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면 예기치 못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공동체적(Collective) 전략이 된다. 이

를 통해 한 가지 자원이나 생계활동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변화나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양지리철새마을의 경우 쌀값 하락은 마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다. 일부 밭농사, 소·닭 사육, 개농장, 양봉 등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민들의 생계수단은 대부분 벼농사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마을에서 만드는 가공품은 없고 개인들이 소규모로 만들어 알음알음 파는 수준이다. 동송읍내의 시장에서 판매업에 종사하기도 하나 마을주민 중에 이렇게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최근에는 벼농사의 수익성 약화에 대한 대응이자 기계화가 어려운 밭농사를 대체하기 위해 하우스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주민이 많아져 비닐하우스가 논 중간에 많이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민도 있다. 하우스작물은 수익성이 높지만 일명 ‘하우스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으며, 비닐하우스가 있는 만큼 철재의 먹이 터가 되는 논외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우스작물인 파프리카는 이제 철원오대쌀과 함께 양지리의 대표적인 작물로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벼농사는 마을의 절대적인 수입원이다.

“여기는 개발제한지역인만큼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농산물 원가는 싼데 소비자 가격이 비싸잖아요. 중간에서 농산물 유통업체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공품을 만들어보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고, 부가세도 있고 그래서 못해요.” (정희섭 2016, 6월 21일 인터뷰)

“비닐하우스가 생기면 그만큼은 철재가 늘어서 찾아오질 않게 되죠. 하지만 비닐하우스 작물은 수익성도 높고, 다른 밭농사는 기계로 하기가 힘들니까.” (김용석 2016, 6월 21일 인터뷰)

Ruiz-Ballesteros(2010)의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 개념에 따르면 양지리철재마을이 벼농사 위주로만 생계 활동을 하는 것보다 관광활동을 통해서 수익구조의 상호보완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이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양지리철재마을의 관광활동은 이장과 사무장이 주된 주체가 되어 공동체활동으로서 기획되고 실천되고 있다. 주민들은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수익금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을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공동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수익을 공유한다. 지역축제 준비에 참가하고 일당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적인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이장을 통해 공동작업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축제장에서 부스를 받기가 힘든데, 올해는 이장님이 요청해서 좋은 자리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니 부녀회에서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죠.” (김용석 2016, 10월 21일 인터뷰)

“군청에서 나한테 (축제장 시설물 만드는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이런 일을 하면 마을사람들한테 용돈벌이라고 되니까 좋지.” (정희섭 2016, 12월 30일 인터뷰)

2. 재조직과 재생을 위한 다양성 키우기(Nurturing Diversity for Reorganization and Renewal)

두 번째 특성은 다양한 변화상황에 대처했던 기억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제도와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여 참신함과 혁신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활동은 커뮤니티의 환경과 문화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집합적 기억은 관광활동의 기반이 되고, 관광활동을 위해 공동체적 지식과 기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 즉 혁신과 참신함이 강화되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Ruiz-Ballesteros(2010)는 두 번째 특성에서 참신함과 혁신의 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Berkes and Seixas(2005)의 지역연구에서 도출된 특징으로, 커뮤니티의 지식과 기억이 관광활동을 계기로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게 되는 중요한 중간과정이다. 양지리철재마을의 경우에는 체험활동, 관광객들의 식사 준비, 지역축제 참가를 통해 마을 고유의 공동체적 지식이 공유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손두부만들기는 양지리마을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자원으로, 마을부녀회 회원들을 통해서 축적되고 전승되고 있다. 또한 양지리주민들이 새끼줄축제장에

사용되는 짚풀장식, 한탄강 얼음트레킹 코스에 설치되는 다리와 각종 장식물들은 특별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마을의 이러한 공동체적 지식은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고 혁신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는 현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혁신적인 시도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 즉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 기획단체에 의해서 이루어고 있었다. 마을의 노년층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 서울 등 타 지역에 사는 자녀의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살던 집을 팔기도 하지만 그냥 빈집으로 두는 경우도 많은데, 버려진 집이 아니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양지리철새마을은 대북 선전마을로 조성되면서 일괄적으로 공급된 건물들이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고 과거의 건물양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을고유의 장소적 기억으로서 보존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철원군청에서는 빈집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아 예술기획단체의 대표가 사비로 정미소 건물을 매입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예술가들의 작업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을 안에 정미소가 버려진 데가 있는데, 000 선생님께서 사들일 예정이시라고 들었어요. 목조 건물인데 지금은 폐허가 돼서 분위기가 독특하죠. 옛날에 사용했던 기계장치들이나 벼 껍질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재미있어요.” (정소영 2016, 4월 20일 인터뷰)

“군청에서 올해는 레지던시를 만드는 데는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비로 건물과 텃밭을 매입했어요. 앞으로 전시관으로 쓸 예정이에요. 정미소 건물도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 매입하

게 되면 작품들을 영구 설치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은경 2016, 5월 3일 인터뷰)

또한 작가 레지던시에 입주하는 예술가들의 개입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승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한 작가는 마을에 머무는 기간 동안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처음 레지던시에 입주했을 때에는 계획에 없었던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주민들에게 이벤트를 만들어주려고 했다. 작가는 마을에 이벤트가 별로 없어서 주민들이 심심해하는 것, 마을 주변 논 중간중간 비닐하우스가 많이 생기는 것, 야유회 때 좁은 관광버스 안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즐기던 모습, 마을이 시간대별로 다양한 빛의 색으로 변하는 것 등에 영감을 받아 ‘비닐하우스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작가가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재료들로 디자인한 설치물을 마을 이장, 사무장과 함께 제작하고 여러 가지 공연과 함께 마을에서 접하지 못하는 음식들도 준비하였다. 또한 작가는 마을 내의 양봉업자로부터 얻은 밀랍을 활용해서 철원의 현무암에서 모티브를 얻어 현무암 모양의 초를 만들기도 했다. 즉 마을의 환경적 조건과 생활지식들은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들 스스로 그러한 혁신을 이루어내기보다 외부에서 유입된 예술가에 의해서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DMZ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공간이니까. 작가들이 관심이 많아요. 독일의 그뤼네스반트도 우리나라 DMZ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에요. 여기처럼 사람 사는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찬숙 2016, 7월 2일 인터뷰)

“마을에서 지내는 동안 특별한 일도 별로 없고 마

을 너무 조용해서, 마을 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드시는 음식 말고 새로운 것을 맛보게 해 드리고 싶어요.” (정소영 2016, 7월 2일 인터뷰)

그러나 작가들의 마을 거주기간은 짧게는 일주일, 길어야 두 달 정도이며, 가장 마을에 오래 있었던 경우는 4개월이었다. 마을의 자원과 지역적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고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작가와 마을주민 간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이다.

3.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 결합하기

(Combining Different Kinds of Knowledge)

세 번째 특성은 관광활동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지식을 외부인, 즉 관광객의 관점으로 이해함으로써 커뮤니티와 외부세계를 연결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관광객이 원하는 것, 커뮤니티의 목표, 커뮤니티 환경의 잠재력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이러한 지식을 커뮤니티 전체로 전달하는 동력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단지 관광활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의 지식을 축적한다는 의의도 있다.

양지리철새마을에서 관광객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중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주로 사무장이다. 마을주민의 고령화로 인해 귀농, 귀촌 등으로 새로 유입되는 장년층이 마을의 중요한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는데,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주해오는 만큼 마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마을의 가치를 알고 있고 새로운 시도들을 한다. DMZ철새평화타운 내 카페 운영을 맡았던 NGO 활동가 주민 역시 최근에 이주한

사람으로, 그동안 대량으로만 판매되던 마을의 농산물을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게 소분하고 패키지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것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내부적인 갈등으로 그가 추진했던 일들은 모두 중단되어, 사무장의 경우와 같이 중간자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다. 그는 교포 출신으로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커뮤니티의 기존 문화와 원활하게 결합되지 못했다.

“스위스에서 30년 정도 살다가 우연히 양지리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마을에 대해서 다른 교포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요. 여기는 큰 시설이 들어오거나 개발을 하는 것보다 마을의 현재 가치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을주민 개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마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익명 2016d, 4월 20일 인터뷰)

양지리철새마을은 DMZ철새평화타운을 조성하면서 하드웨어 기반시설 조성 and 소프트웨어 구축을 함께 진행하였다. DMZ철새평화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건축, 조경, 마을만들기, 브랜드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마을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사업 연구진은 마을브랜드 디자인, 도시락메뉴 개발 등을 마을주민과 함께 진행하며 그 과정을 「철새협동조합」(강봉이, 김광수, 김아연, 김지석 외 2012)이라는 책으로 출판함으로써 주민들이 어떤 경험을 하였고 얼마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는지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에는 당시 개발한 브랜드디자인이나 도시락메뉴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 비록 그동안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 있었지만 사업 종료 후 이것이 마을 전체 커뮤니티

티의 지식으로 전달되지는 못했다.

“이런 책(「철새협동鳥협」)이 있는 줄 몰랐네. 그 때는 그냥 행사한다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갔던 거지. 그때 한번 하고 말았어.” (익명 2016a, 8월 30일 인터뷰)

4. 자기 조직화의 기회 만들기

(Creating Opportunity for Self-organization)

네 번째 특성은 관광을 운영하는 조직체를 만드는 ‘자기 조직화’ 능력이다. 이것은 관광활동에 관여하는 커뮤니티 조직의 역량 강화, 갈등관리 메커니즘 수립, 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배의 형평성 관리,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다양한 레벨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기 조직화의 기본원칙은 커뮤니티의 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것으로, 관광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도록 수익성을 조절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그 누구도 커뮤니티의 자원을 배타적으로 소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지리철새마을은 농업으로 발생하는 수입 이외에 관광활동과 자매결연사업으로 얻는 수익금을 마을기금으로 조성해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단합을 하거나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즉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로, 회복탄력성의 기본 토대가 되는 자기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개인적으로 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지 못해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지리철새마을로의 방문은 사무장을 통해서 숙박이나 식사, 각종 체험활동들을 예약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개

인적으로 진행되는 관광사업들은 기존의 마을관광 운영체제와 연계가 되지 않은 채 다른 채널을 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마을의 기존 관광운영 체제와 협력하지 않아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미약하고 홍보마케팅 역량도 부족하여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의 관광운영조직은 커뮤니티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배의 형평성을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농촌관광 시설) 여기는 상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을주민들 반응도 시큰둥해요. 이장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소영 2016, 4월 20일 인터뷰)

5. 소결: 의의와 한계

양지리철새마을은 생태적, 문화적으로 고유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마을주민들은 이장과 사무장이란 주요 주체들의 매개를 통해 집합적 활동으로서 마을 관광활동에 참여하여, 회복탄력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적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장과 사무장을 통해 마을관광 프로그램이 일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전체 마을관광 운영이 조직적으로 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커뮤니티에 새로 유입되는 주민들이 커뮤니티와 외부 관광객을 연결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나 지자체, 또는 외부 민간단체의 개입을 통해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혁신이 도모되어 커뮤니티의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양지리철새마을과 주변 생태환경이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주민, 외부에서 유입되는 예술가 및 전문가들이 기존의 마을관광 운영 조직에 원활히 결합되

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현재 마을현황으로부터 이를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발견된다.

먼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문가들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40~50대 주민들은 겨울철에도 다음 농사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장을 제외하고는 마을관광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마을의 자원과 지역적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고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문가, 예술가와 마을주민 간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이다. 주민들은 마을에 거주하는 예술가에게 관심이나 기대가 없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주민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서 집안의 사소한 일들도 잘 못하세요. 옛날에는 마을기금으로 책도 사고 관리했었는데, 마을에 책을 읽을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방치되었어요.” (익명 2016b, 8월 30일 인터뷰)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레지던스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동안 작가들이 많이 오긴 했었는데 이렇게 오래 마을에 머무는 것은 처음이래요. 부녀회장님은 제가 마을에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소영 2016, 4월 20일 인터뷰)

“예술가들의 작업이 주민들 삶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작가들이 왔다가 두세 달이면 떠나는 일이 반복되기만 하죠.” (익명 2016c, 8월 18일 인터뷰)

외부 전문가와 마을주민 간 인식의 차이도 발견되었다. 이장은 예술가들이 벽화를 그리거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작품활동을 한 것을 마을 안에 남겨놓아 양지리가 예술인마을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작가들의 입장에서 양지리가 예술인들로 인해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방문객들이 마을을 찾게 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 차이를 보였다.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작가들이 반드시 커뮤니티 아트분야에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마을의 요구를 작업에 반영하는 일이 쉽지 않다. 최근 작가들의 작품은 영상물의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아 마을 내에서 전시하거나 보관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2016년 9월부터 두 달간 마을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한 아르헨티나 작가의 프로젝트는 10년의 기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마을의 매력을 높이는 문화자산이 될 수도 있으나 당장은 눈에 띄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마을 안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마치 연극 세트 같아요.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장님은 마을 안에 있는 대피소에 벽화를 그려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건이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정소영 2016, 4월 20일 인터뷰)

“예전에 어떤 작가가 마을 입구에 주민들이 농사 일 하는 모습을 그림을 커다랗게 그려놨는데, 너무 피곤하고 불쌍해 보이게 그려서 엄청 싸웠어. 결국 그림은 내렸지.” (정희섭 2016, 7월 28일 인터뷰)

커뮤니티 기반 관광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리더가 바뀌는 것 또한 마을이 직면하게 되는 큰 환경변화 중 하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양지리철새마을의 가장 중요한 리더는 이장이며, 본 논문의 조사기간 중 마을관광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서 이장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DMZ철새평화타운의 운영에 대해서 철원군과 마을의 의견이 분분했을 때 철원군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채널도 이장이었고, 이장의 리더십으로 인해 부녀회라는 하위 조직이 활성화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마을을 찾는 외부인들도 마을일에 대해서는 이장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사무장이 종종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이장이 지역 내에서 구축해놓은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에는 미치지 못한다. 즉 이장은 곧 마을 전체의 역량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주체이자, 마을이 직면한 내·외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관리자이다. 커뮤니티의 규모가 작고 고령화가 심각한 마을인 만큼 이장 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는데, 이는 회복탄력성의 관점에서 위험한 구조이다.

“우리 마을과 관련해서는 나한테 연락하는 게 가장 빨라요. 가끔 다른 사람 통해서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 나한테 연락이 오거든.” (정희섭 2016, 7월 2일 인터뷰)

V. 결론

이상에서 철원 DMZ 접경지역의 민간인마을인 양지리철새마을이 철새탐조관광 및 안보관광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실천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양지리철새마을은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 스

스로 관광사업을 시작한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또한 DMZ 접경지역이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마을의 가치에 주목하는 다양한 외부인들이 마을에 유입되어 주민들의 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반시설 조성이나 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중이다. 마을주민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도 않고 마을 리더십과 외부인들의 방문에 만족스러워 하고 있으므로, 양지리철새마을은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벼농사의 수익성 악화로 마을의 중요한 생태자원인 철새의 먹이터가 되는 논이 줄어들거나, 남북정세가 급변하는 등의 외부충격이 발생해도 마을이 지속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양지리철새마을은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통해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각한 농촌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DMZ 접경지역이 가지는 생태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며, 군사지역으로서 개발제한, 쌀값 폭락 등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DMZ 접경지역 마을을 보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지리철새마을이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통해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지리 마을주민들은 벼농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다양한 수익활동을 통해 지역자원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터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MZ 접경지역으로서의 독특한 아우라는 예술가들을 유인하고, 그들이 마을의 자원 중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요소들을 발굴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재생산함으로써 마을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마을의 가치를 알고 이를 활용할 능력이 있는 예술가들이나 외부 전문가들은 마을이 기존에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또 새로운 혁신을 이루더라도 커뮤니티 내부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의 회복탄력성 및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을 여지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내·외부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가 및 외부 전문가들은 보다 커뮤니티 내부지향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외부자적 시각들에 개방적인 관점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마을주민의 일상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과 지원, 마을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의 확대라는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주민 일상의 활력소가 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 지원함으로써 커뮤니티 고유의 지식과 기억을 혁신의 원천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현재 마을 내에서 진행 중인 예술프로젝트들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이것은 본문에서 다룬 사회생태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이 가지는 4가지 특성 중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벤트나 프로그램들이 마을의 고유한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관광자원의 확충은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통한 수익구조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와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채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생태시스템 회복탄력성의 첫 번째, 세 번째 특성에 해당된다.

둘째로, 마을이 가지는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홍보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현재 실질적으로 마을관광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최근 마을로 이주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외부에서 유입된 문화예술

계 종사자들이 회복탄력성의 두 번째 특성인 혁신을 주도한다. 또한 젊은 인구의 유입은 주민들로 하여금 외부 사회가 마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것은 회복탄력성의 세 번째 특성이다. 그러나 마을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부 주민과 작가 레지던시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기존의 커뮤니티와 원활히 교류하지 못하거나 의견에 차이를 보이는 등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DMZ 접경지역의 마을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서로 다른 이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마을은 일상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주목하는 마을의 가치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공론화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집합적 지식기반을 확대하고 마을 리더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에 따르는 한계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마을의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현재 철원에서는 수백억 원 규모의 대규모 관광개발이 지속적으로 계획, 실행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사업비 배정방식, 지방 토목업체들과의 이해관계 등 구조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관습의 영향이 크다. DMZ철새평화타운의 사례와 같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존 관광개발 풍토로부터 벗어나 마을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농촌관광, 생태관광 등 커뮤니티 기반 관광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지역주민의 참여나 만족도 제고 방안을 통해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

을 제고하기 위한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생태관광이 발달한 해외의 타 지역과 달리 국내 커뮤니티 기반의 생태관광 사업들이 커뮤니티의 경제적 이익보전과 주민 만족도 제고만을 목표로 했을 때에는 대규모 개발방식에 비해 도입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DMZ 접경지역 마을들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통해 남북정세 변화라는 외부 충격에도 우리나라 DMZ 접경지역이 가지는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1. 강봉이, 김광수, 김아연, 김지석, 변혜선, 염철호, 이승연 외. 2012. 철새협동마을. 파주: 나무도시.
Kang Bong-i, Kim Kwang-su, Kim Ayeon, Kim Ji-suk, Byun Hyeon, Yeom Chulho and Lee Seungyeon. 2012. *Community Design of Cheorwon Cheolsae Village*. Paju: Namudosi.
2. 김경희, 박덕병. 2013. 농촌관광객의 지역 농특산물 구매 선택속성, 만족, 충성도의 구조관계. *관광학연구* 37권, 1호: 279-301.
Kim Kyunghee and Park Dukbyeong. 2013.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ection attribute, satisfaction, and loyalty of local specialty products for rural tourist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7, no.1: 279-301.
3. 김대식, 권용대, 최수명, 임창수. 2005. 농촌관광기반의 지속 가능한 마을정비 유형의 설정. *농촌계획* 11권, 1호: 45-53.
Kim Daesik, Kwon Yongdae, Choi Soomyung and Im Changsoo. 2005. A study on sustainable development scheme of rural villages considering infrastructure for rural touris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1, no.1: 45-53.
4. 김병국, 김용기, 박석희. 2013. 농촌관광이미지가 관광객 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완주 창포마을과 아산 외암마을을 사례로*. *관광학연구* 37권, 1호: 303-324.
Kim Byunggook, Kim Yongki and Park Sukhee. 2013. Effects of images of rural tourism on tourists'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Case of Changpo and Woiam villag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7, no.1: 303-324.
5. 김용근, 조중현. 1998. 생태관광성향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 환경생태학회지* 12권, 2호: 156-162.
Kim Yonggeun and Cho Joonghyun. 1998. A survey on the disposition of ecotourism.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12, no.2: 156-162.
6. 김용석. 양지리철새마을 사무장. 2016. 저자와 인터뷰, 4월 20일, 6월 21일, 10월 21일, 철원.
Kim Yong Seok. Manager of Yangji-ri. 2016. Interviewed with the Author, April 20, June 21, October 21, Choerwon.
7. 김진, 고동완. 2011. 생태관광활동 참여에 따른 관광환경태도의 변화: 우포늪 습지 방문객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9권, 1호: 56-64.
Kim Jin and Ko Dongwan. 2011. A change in tourism environmental attitudes through ecotourism activities: Focusing on ecotourism participants in Upo Wetland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9, no.1: 56-64.
8. 김호, 허승욱. 2006. 친환경농업 및 농촌관광 관련 지역특화 발전특구의 발전전략.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4권, 4호: 361-383.
Kim Ho and Heo Seungwook. 2006. Development issue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related to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and green tourism. *Korea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14, no.4: 361-383.
9. 김희순. 2011. 커뮤니티 기반 생태관광의 연구: 멕시코 유카탄을 사례로.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22권, 1호: 93-121.
Kim Heesoon. 2011. A study on community based ecotourism: A case of Yucatan in Mexico. *Revista Asia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2, no.1: 93-121.
10. 나란희, 윤용철, 김영주. 2010. AHP법을 이용한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의 성과분석. *농업생명과학연구* 44권, 4호: 57-68.
Na Ranhee, Yoon Yongcheol and Kim Youngjoo. 2010. Accomplishment analysis of the rural traditional theme village by AHP method.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44, no.4: 57-68.
11. 노용호, 이수형, 최이규, 양희진. 2004. 생태관광자 만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8권, 1호: 27-42.
Roh Yongho, Lee Soohyung, Choe Rhee-gyu and Yang Hee-jin.

2004. Determinants of ecotourists' satisfaction.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8, no.1: 27-42.
12. 류시영, 엄서호. 2008. CIT를 이용한 농촌관광의 만족, 불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부래미 마을 방문객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14권, 3호: 11-17.
- Ryu Siyoung and Um Seho. 2008.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factors on rural tourism: Focused on rural tourists visiting Buraemi commun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4, no.3: 11-17.
13. 문창현. 2009. 금강 철새도래지 생태관광객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3권, 5호: 460-470.
- Moon Changhyun. 2009. A study on determinants of the ecotourist's satisfaction with Geumgang Birdwatching Destination.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23, no.5: 460-470.
14. 박은별, 김현, 최희선. 2014. 순천만 생태관광객의 태도와 행태, 만족도가 관광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경학회지* 42권, 1호: 50-63.
- Park Eunbyul, Kim Hyun and Choi Heesun. 2014. The study on the effect of Eco-tourist's attitude, behavior and satisfaction on tour expenses at Suncheon Ba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2, no.1: 50-63.
15. 박재철, 송광인, 박찬창, 김현욱, 심재건, 이기봉. 2006.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참여 마을의 농촌관광 성과 분석: 도시민 유치실적과 소득 및 고용 축제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12권, 3호: 107-115.
- Park Jaechul, Song Kwangin, Park Chunchang, Kim Hyunwuk, Sim Jaegeon and Lee Gibong. 2006. A study of performance of rural tourism in the participating village to rural village contest: With special reference on urban visitors and income, original festival of villag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2, no.3: 107-115.
16. 송영민. 2010.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 - 농촌 관광마을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4권, 4호: 249-272.
- Song Youngmin. 2010.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sustainable community based tourism: A case of a rural tourism village in Korea.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4, no.4: 249-272.
17. 임봉훈. 2004. 조건불리 산촌지역 생태관광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분석: 경북 봉화군을 대상으로. *농촌계획* 10권, 3호: 9-18.
- Eom Boonghoon. 2004. An analysis on residents' attitudes on ecotourism of less favored mountainous area: Focused on the Bonghwa-gun, Gyongbuk Provi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0, no.3: 9-18.
18. _____. 2006.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농산어촌 체험마을 현황 분석: 농촌관광 인터넷 포털사이트 분석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12권, 4호: 125-133.
- _____. 2006. Present state of experiencing villages for green tourism in rural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2, no.4: 125-133.
19. 윤유식, 한송희, 김용렬. 2014. 외국인 농촌관광 중요속성 세분화에 따른 만족도 및 충성도 차이 연구. *농촌계획* 20권, 2호: 115-126.
- Yoon Youshick, Han Songhee and Kim Yonglyoul. 2014. A study of segmentation of foreign rural tourists based on rural tourism attributes and satisfaction and loyal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0, no.2: 115-126.
20. 윤화영, 김동석. 2008. 산촌지역 생태관광 개발에 대한 주민의식과 참여에 관한 연구: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지역과 강원도 원주시 황둔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2권, 3호: 280-288.
- Yun Hoayoung and Kim Dongsuk. 2008. A study on a residents' consciousness and a attitude toward participation for development of ecotourism in a mountain villages: Focused on the Mt. Ungil on Namyangju and Hwangdun-ri in Wonju.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22, no.3: 280-288.
21. 이병훈. 2012. 스토리텔링구원을 통한 농촌관광마을에서의 장소성 확보: 개실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18권, 1호: 47-57.
- Lee Byounghoon. 2012. Securing placeness at rural tourism village via storytelling implementation: Focusing on case study of Gaesil Villag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8, no.1: 47-57.
22. 이세희, 정남수, 엄대호. 2008. 농촌마을의 농촌관광 시행에 따른 인구유입효과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4권, 3호: 19-25.
- Lee Sehee, Jung Namsu and Um Daeho. 2008. A study on the influx of population by rural tourism in rural villag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4, no.3: 19-25.
23. 이은경. 예술기획단체 직원. 2016. 저자와 인터뷰, 5월 3일, 철원.

- Lee Eunkyung. Employee of the art planning institute. 2016. Interviewed with the Author, May 3, Choerwon.
24. 이재혁, 손용훈. 2015. 평창 마하생태관광지의 주민 주도 운영 과정과 참여자의 태도에 관한 주관성 분석. *농촌계획* 21권, 1호: 63-75.
- Lee Jaehyuck and Son Yonghoon. 2015. Analysis of resident-oriented management process & it's participants subjectivities in Maha Ecotourism, Pyeongchang-gu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1, no.1: 63-75.
25. 이주연, 이영주, 이동호. 2005. 농촌관광개발 이해당사자 분석 방법론: 사회연결망분석 사례 연구. *농촌계획* 11권, 3호: 29-42.
- Lee Jouyeon, Lee Yeongjoo and Lee Dongho. 2005. An alternative methodology for stakeholder analysis in rural tourism development: A case study of social network analysi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1, no.3: 29-42.
26. 이진희. 2006. 서귀포시 생태관광마을조성에 대한 주민인식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2권, 2호: 17-25.
- Lee Jinhee. 2006. An analysis on the residents' perceptions of the ecotourism village development in Seogwipo C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2, no.2: 17-25.
27. 이호영, 오충현. 2012. 생태관광지 유형별 탐방객 특성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6권, 2호: 264-272.
- Lee Hoyoung and Oh Choonghyeon. 2012. A study on visitors' characteristics and cognition in regard to damage of nature environment in different types of ecotourism destination.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26, no.2: 264-272.
28. 익명. 양지리 주민. 2016a. 저자와 인터뷰, 8월 30일, 철원. Anonymous. Resident of Yangji-ri. 2016a. Interviewed with the Author, August 30, Choerwon.
29. _____. 양지리철새마을 보건소장. 2016b. 저자와 인터뷰, 4월 20일, 8월 30일, 철원. _____. Head of the Public Health Center in Yangji-ri. 2016b. Interviewed with the Author, April 20, August 30, Choerwon.
30. _____. 철원 역사연구가. 2016c. 저자와 인터뷰, 8월 18일, 철원. _____. Local history researcher. 2016c. Interviewed with the Author, August 18, Choerwon.
31. _____. NGO 활동가 양지리 주민. 2016d. 저자와 인터뷰, 4월 20일, 철원. _____. NGO activist living in Yangji-ri. 2016d. Interviewed with the Author, April 20, Choerwon.
32. 전인철, 오형은, 조중현, 김용근. 2007. 농촌관광마을 방문객의 공익적 기능 인식 평가: 경기도 양수리, 주록리, 신론리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5권, 2호: 81-90.
- Jeon Incheol, Oh Hyungeun, Cho Joonghyun and Kim Yonggeun. 2007. The evaluation of the green tourists' cognition of function for public benefits: The survey of visitors' cognition in Yangsuri and Jurokri, Snnonri.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5, no.2: 81-90.
33. 정소영. 양지리 거주 작가. 2016. 저자와 인터뷰, 4월 20일, 7월 2일, 철원. Chung Soyoung. Artist living in Yangji-ri. 2016. Interviewed with the Author, April 20, July 2, Choerwon.
34. 정희섭. 양지리철새마을 이장. 2016. 저자와 인터뷰, 4월 20일, 6월 21일, 7월 2일, 7월 28일, 8월 18일, 12월 30일, 철원. Chung Heesub. Head of Yangji-ri. 2016. Interviewed with the Author, April 20, June 21, July 2, July 28, August 18, December 30, Choerwon.
35. 진혜련, 채혜성, 조록환. 2014. 농촌관광마을 VI디자인, 포장디자인 개선 현장 실용화 및 효과: 연천 옥계마을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20권, 3호: 191-199.
- Jin Hyeryeon, Chae Hyesung and Jo Lokhwan. 2014. Commercialization of field for improving VI design & package design at rural tourism village and its effect: Focused on Ok-Gye Village of Youngche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0, no.3: 191-199.
36. 최국현, 김호. 2005. 남해군 농촌관광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3권, 3호: 261-279.
- Choi Kukhyon and Kim Ho. 2005. Development strategies for rural tourism in Nam Hae. *Korea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13, no.3: 261-279.
37. 최재우. 2004. 뉴질랜드 생태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권, 2호: 286-299.
- Choi Jaewoo. 2004. A study on the ecotour programmes in New Zealand.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0, no.2: 286-299.
38. _____. 2006. 남태평양제도의 환경친화적 관광특성: 피지(Fiji)의 생태관광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권, 1호: 124-141.
- _____. 2006.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friendly

- tourism in the South Pacific Islands: A case study of ecotourism in Fiji Island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2, no.1: 124-141.
39. 최찬숙. 양지리 거주 작가. 2016. 저자와 인터뷰, 7월 2일, 철원.
Choi Chansook. Artist living in Yangji-ri. 2016. Interviewed with the Author, July 2, Choerwon.
40. Berkes, F. and Seixas, C. 2005. Building resilience in lagoon socio-ecological system: A local-level perspective. *Ecosystems* 8, no.8: 967-974.
41. Folke, C. 2003. Socio-ecological resilience and behavioural responses. In *Individual and Structural Determinants of Environmental Practice*, eds. Biel, A., Hansson, B. and Mårtensson, M., 226-287. London: Ashgate.
42. Hamzah, A. and Mohamad, N. H. 2012. Critical success factors of community based ecotourism: Case study of Miso Walaihomestay, Kinabatangan, Sabah. *The Malaysian Forester* 75, no.1: 27-40.
43. He, G., Chen, X., Liu, W., Bearer, S., Zhou, S., Cheng, L. Y. and Zhang, H. et al. 2008. Distribution of economic benefits from ecotourism: A case study of Wolong nature reserve for Giant Pandas in China. *Environmental Management* 42, no.6: 1017-1025.
44. Kiper, T., Özdemir, G. and Saglam, C. 2011. Environmental, socio-cultural and economical effects of ecotourism perceived by the local people in the Northwestern Turkey: Kiyiköy case. *Scientific Research and Essays* 6, no.19: 4009-4020.
45. Maldonado, C. 2005. *Pautas Metodológicas para el Analisis de Experiencias de Turismo Comunitario*.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46. OECD. 1994. *Tourism Strategies and Rural Development*. Paris: OECD.
47. Ruiz-Ballesteros, E. 2010. Social-ecological resilience and community-based tourism: An approach from Agua Blance, Ecuador. *Tourism Management* 32, no.3: 655-666.
48. Suansri, P. 2003. *Community Based Tourism Handbook*. Bangkok: Responsible, Ecological Social Tour.
49. Walter, P. G. and Reimer, J. K. 2012. The ecotourism curriculum and visitor learning in community-based ecotourism: Case studies from Thailand and Cambodia.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7, no.5: 551-561.
50. Zapata, M. J., Hall, C. M., Lindo, P. and Vanderschaeghe, M. 2011. Can community-based tourism contribute to development and poverty alleviation? Lessons from Nicaragua. *Current Issues in Tourism* 14, no.8: 725-749.

-
- 논문 접수일: 2018. 7. 8.
 - 심사 시작일: 2018. 8. 8.
 - 심사 완료일: 2018. 9. 27.

요약

주제어: 커뮤니티 기반 관광,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DMZ 접경지역, 철원

DMZ 접경지역의 농촌마을들은 생태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고령화, 시장약화, 급변하는 남북관계 등으로 항상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을 분석한 Ruiz-Ballesteros(2010)의 분류에 따라, DMZ 접경지역 농촌마을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운영의 현황과 의의, 당면과제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철원의 양지리철새마을이며, 마을에서 일어나는 주요 행사에 참여하면서 주민과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양지리철새마을은 생태적, 문화적 고유성을 기반으로 마을주민들이 주체적, 집합적으로 참여하

여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외부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유입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역량 부족, 외부 전문가 참여의 지속성 부재 및 마을주민과의 가치관 차이, 마을 리더 개인에 대한 의존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극복하고 DMZ 접경지역의 마을공동체와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와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지역가치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의 개방성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